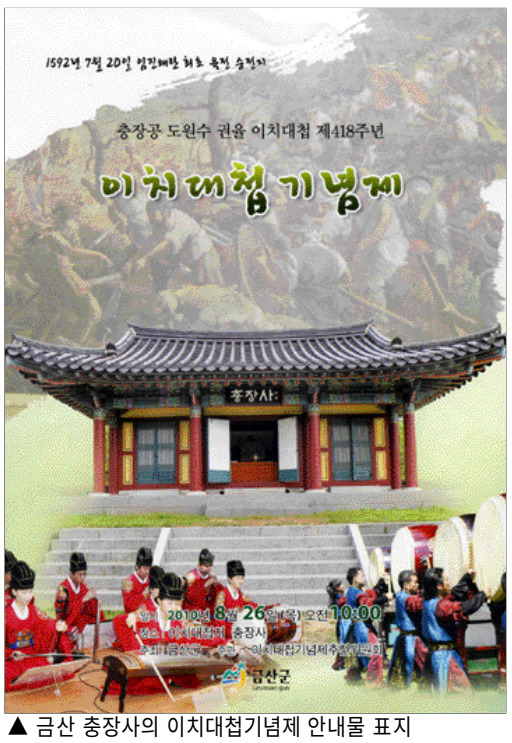
418주년 ‘ 이치대첩梨峙大捷 ’기념제

1592년 7월 2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8월 2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충장사忠莊祠에서



▲ 금산 충장사의 이치대첩기념제 안내물 표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에 있는 충장사忠莊祠에서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慄 도원수의 이치대첩梨峙大捷을 기리는 제418주년 기념제가 열렸다. 임란 당시의 대첩일 날짜는 1592년의 7월 20일인데 이를 양력 8월 26일로 산출하여 정일定日로 삼아 행사하는 바 금년이 그 418돌을 맞는 해이다. 금산군에서 주최하고 주관은 이치대첩기념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추진위는 지역 진산珍山향교와 유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진산면소에 권설되어 있다.

안내문 수단手單에 충장공이 당시 임전 장졸에게 “ 오늘의 싸움은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다. 죽음만 있고 삶은 없다 ” 고 한 말씀을 캐치 프레이즈 삼아 실은 주최측은 그 ‘ 모시는 글 ’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 조선 선조 25년, 1592년 7월 20일(음)에 있었던 이치대첩은 관군 · 의병 등 1500여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왜병 1만여명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로서, 임란 초기 육전의 최초 승전으로서 임란의 전세를 뒤바꾸는 데 크게 기여한 역사적 의의와 함께 그 유적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혁혁한 승전으로 국난을 극복한 충장공 권율 도원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며, 순국 선렬을 추모하고 빛나는 이 대첩의 전적지를 국가 사적지로 성역화하여 호국의 얼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이치대첩 418주년 기념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숭고한 뜻을 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사 안내 유인물에서는 권율 도원수와 이치대첩의 상황 및 전적지와 대첩비의 문화재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해설을 간추려 싣고 있었다.

이치는 해발 350m의 고개로 산돌배나무가 많아 ‘ 배티재 ’, 한자로 배나무 이梨와 고개 치峙자를 써 이치라 해왔다. 금산에서 호남의 수도 전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으로서 양쪽에 70도의 비탈산이 협곡 모양을 빚고 있다. 왜군은 조선을 침공한 후 북상에 필요한 군량을 현지 조달하고자 곡창 전라도를 점령하려 했다. 일본의 제6군을 이끄는 고바야까와 다까가께小早川隆景는 저들이 적국赤國으로 명명한 호남 점령의 특명을 띠고 서울에서 김천으로 내려와 추풍령에서 장호현이 방어하는 관군을 격파하고 황간 · 영동을 거쳐 제원濟原의 천내강川內江에서 권종權悰 금산군수를 패사시킨 뒤 금산에서 조헌趙憲의 700의병도 전멸시킨 여세로 전주 침공을 위해 이치를 돌파하고자 했다. 이같은 왜군의 호남 침공을 막고자 이치에 진을 친 권율은 1천5백여 병력으로 편제를 정비해 매섭게 훈련시키면서 험한 지형을 이용해 고갯길 양편에 진지를 구축하고 목책木柵과 녹채鹿砦 · 여장女墻 등의 방어 시설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왜군은 아침 7시 경부터 공격을 시작했고 아군은 오후가 되어 성채 안에까지 들어온 적을 상대로 총포가 미치지 않자 육박으로 싸우는 오전 戰을 벌여 오후 3시경 1차로 적을 후퇴시켰다. 적은 많은 병력과 우세한 화력으로 오후 5시경 2차 공격을 감행했고 아군은 더욱 매서운 기세로 내리쳐 무찔렀으며, 지형을 이용하는 지략으로 10배의 적을 격파한 권율은 미리 영정곡에 나누어 매설한 복병 권승경權升慶 부대로 하여금 패주하는 적의 퇴로를 막고 기습케 하여 고바야까와 정예대군을 집요히 괴멸시켰다. 권율은 1500군사로 1만6천에 달하는 왜군 제6군의 주력을 궤멸시켜 호남 침공을 단념시켰다. 이는 임란 육전陸戰 3대첩 중 최초의 대첩으로 초기에 파죽의 패주를 거듭하여 걷잡을 수가 없던 조선군의 사기를 되살리고 전쟁 전반의 형세를 일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02년에 일대 유림의 발의로 금산군 금성면 상가리의 금곡金谷에 권율 충장공을 주벽主壁으로 하는 금곡사金谷祠가 창건되었다. 금곡은 이치에서 10km 떨어진 곳인데 대첩 당시 싸울 때 나던 쇳소리가 이곳에까지 들렸고 이후로 이곳에서 때마다 쇳소리가 울린다고 하여 지명이 ‘ 쇳소릿골 ’이라는 뜻의 금곡金谷으로 된 곳이다. 이곳에 사당과 함께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이 지은 비문의 이치대첩비梨峙大捷碑가 섰는데, 1940년 일본인 금산경찰서장의 만행으로 대첩비와 사우祠宇가 파괴되었다. 현재 이 깨어진 대첩비는 파편을 모아 1964년에 지금의 위치, 진산면 묵산리 산79-34번지 중턱 이치가 바라보이는 곳에 옮겨 복원하였고 이곳에 2004년에 금곡사를 중건복원하는 차원에서 충장사를 세워 금년으로 3년째 대첩기념제를 받들고 있다.

행사는 2부로 나뉘어 1부가 제전, 2부가 기념공연으로 거행되었다. 제전은 개례선언에 이어 전폐례奠幣禮 · 초헌례初獻禮 · 아헌례亞獻禮 · 종헌례終獻禮 · 음복례飮福禮 · 망료례望燎禮의 순으로 거행되고 예를 필한 후에는 별도로 일반 참제원에게 헌화와 분향의 시간이 주어졌다.

제전의 상향축문常享祝文은 고양 행주산성 충장사 및 행주서원 기공사紀功祠의 상향축문과 동일하였는데 다음과 같았다.

공준기상功峻ㅅ常 명동화이名動華夷 전지건봉戰地虔奉 수왈비의誰曰非宜 절계중추節屆中秋 시치승첩時値勝捷 근이생폐례제謹以生幣醴齊 자성서품 盛庶品 식진명천式陳明薦 : 드높은 공을 떳떳이 휘날리사 명성이 중원中原과 변방에 들레었으니 그 전적지를 경건히 받드는 바 누가 옳지 않다 하오리까. 절기가 가을에 이르러 승첩하신 때를 맞은지라 삼가 희생犧牲과 폐백幣帛과 예주醴酒를 갖추고 여러 품의 제물로써 밝게 베풀어 올리옵나니……

▲ 충장사의 내삼문 안 사우 앞에서 제전이 봉행되고 있다

▲ 초헌관이 신위전에 부복한 가운데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 제전에 이은 2부 행사로 기념공연이 베풀어지고 있다.

행례의 초헌관은 금산군수, 아헌관은 금산군의회 의장, 종헌관은 진산향교 전교가 맡아 하였는데 그 자세한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初獻官 : 박동철朴東喆(금산군수)
아헌관亞獻官 : 김복만金福萬(군의회 의장)
종헌관終獻官 : 박찬웅朴贊雄(진산향교 전교)
집례執禮 : 김병례金炳禮
대축大祝 : 신정교辛禎敎
알자謁者 : 김창희金 熙
동집사東執事 : 김한중金漢中
서집사西執事 : 송기안宋琪安
사준司 : 이대제李大濟
당하집례堂下執禮 : 문진순文鎭順(여)

1부 제전행사를 마치고 2부 공연행사에 들어가는 식전의 인사말에서 박동철 금산군수는 이치대첩지를 국가 사적으로 지정받아 국비보조로 성역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이를 기필코 달성할 용의를 피력하였다. 이어 김복만 군의회 의장은 현재 중건한 이치 충장사의 설계와 시공을 잘못하여 외삼문外三門이 없이 전면前面이 담과 비탈언덕으로 막힌 상태에 원장垣墻의 동쪽으로 옹색하게 낸 협문夾門을 통해 출입케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속히 이 외삼문부터 제대로 건설할 것을 역설하였다.

제전에는 대전의 연정국악원燕亭國樂院에서 원생들이 나와 제례악을 연주하였고 지역에 있는 육군 제1970부대에서 장병이 나와 참제하였다. 기념공연은 고르예술단에서 나와 승전고勝戰鼓 시연으로서 대북을 가지고 하는 ‘ 승전의 북소리 ’를 울리고, 승전무勝戰舞로서 선무禪舞와 깃발무 등을 선보이며 십팔기十八技 등의 무예도 시연하였다.

<사진 權貞澤 · 글 權五焄>

격려에 감사합니다

8월 27일 안동시 북후면 복야공파 야옹공파보소野翁公派譜所(도유사 권오숭權五崇)에서 20만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니다.